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동대 선학과 기사회생

폐과위기에 있던 동국대 선학과가 기사회생의 길을 찾았다.

동국대 교무처 입학전형위원회가 최근 2004년도 입시부터 '선학전공' 스님 종비생 18명을 뽑기로 한 것.

동국대 교무처는 12일 '스님 종비생 제도를 개정해 총 23명중 18명은 '선학전공'으로 수시모집하고, 5명은 정시모집을 통해 불교학부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선학과 폐과문제는 2003년 2학년 전공지원에 일반학생 1명만 지원하고, 스님 종비생이 모두 불교학과로 지방하면 서 불거졌다. 결국 선학과는 복학생까지 합해도 7명에 불과, 학과 존속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인 정원 8명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는 선을 종지로 한 조계종의 종립대학인 동국대에 선학과가 존폐위기에 처한 것이어서 교계에 파장을 일으켰었다.

하지만 대학한국이 선학과를 존치시키기 위해 스님 종비생 제도를 개설했다고 해도 여전히 과제는 남는다. 우선 입학하는 스님 종비생들이 선학과 학과목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교과목들은 강연에서 이미 배운 내용이기에 스님들은 전공 선택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다.

또 불교학과가 BK21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불교대학의 학부제 시행은 그대로 두기로 한만큼 일반학생을 선학과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선학을 공부한 일반학생들이 일반사회에 나가서도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현재 서구에서 각광받는 선상당사나 마음 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과목을 개발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선학과 교수 홍호스님은 "그동안 학생들이 선학과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일부 커리큘럼에 있었던 만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정해나가겠다"며 "오늘날 사회에서 필요한 선과 관련한 내용을 개발하여 선불교정신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취재1부 차장)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충북: (043)258-3282 강원: (033)643-5599 동해 삼척: (033)521-6293 영주: (054)634-3429 경남 동부: (055)353-1196

“이라크에 연꽃을 피우자”

난민구호 성금모금·자비 등달기 전국 확산

종단협, 타종교와 '어린이에게 의약품' 운동
경불련, 현지에서 사무실 설치 구호활동 전개
재가연대, 여의나루축제 조성 성금 지원키로

조계종·천태종·경불련 등 불교계의 이라크 난민 구호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천태종은 19일부터 2백여 소속 사찰과 산하단체, 관련단체 등을 중심으로 성금 모금운동에 돌입했다. 서울 관문사, 부산 삼광사, 대전 광수사, 인천 연화사 등 천태종 소속 전국 2백여 사찰은 5월 5일 법회를 '이라크 어린이를 위한 특별 기원법회'로 전환해 봉행한다. 이와 함께 '이라크 어린이를 위한 자비의 등달기' 운동도 전개한다. 자비의 등 달기에서 조성된 수익

금은 전액 이라크 어린이를 위한 성금으로 사용된다. 조계종도 16일 총무원 총무회의에서 이라크 난민 돕기 모금 캠페인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남원 실상사(주지 도법)는 5월 5일 오후 7시 보광전 앞뜰에서 '평화의 밤'을 개최하며 이라크 어린이 돕기 행사를 펼친다.

불교종단협의회는 천주교 주교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종교계 단체와 공동으로 '이라크 어린이에게 의약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법회를 통한 성금

모금, 반전평화 콘서트 개최, 반전평화 경기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경불련을 비롯한 불교계 단체들도 난민 구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경불련은 불교계 최초로 임인기(경불련 이라크 긴급구호 대책반 팀장, 41) 씨를 25일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임인기 씨는 이라크에 사무실을 개설한 뒤 본격적으로 구호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경불련, 조계종 중앙신도회, 인드라마생명공동체 등 불교계 단체들은 '이라크난민 돕기 범불교대책위'를 구성해 지속적인 난민 구호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참여불교재가연대는 12일 열린 여의나루 작은 축제에서 조성된 기금 중 10%를 난민구호를 위해 쓰기로 결정했다.

반전평화 불교대책위도 이라크 난민 지원 운동을 펼친다.

박봉원·남동우 기자

29일 조계종 임시총회

별하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 등의 안건을 다룬 조계종 제158회 임시중앙총회가 29일부터 5월30일까지 5일간 회기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2·3면**

이번 총회에서는 종헌 개정의 건,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 동의의 건, 기타 안건 등이 다뤄진다. 총무원은 종헌 부칙에 '1962년 이후 별자의 징계를 받은 자 중 참회와 개선의 정이 뚜렷한 자는 종헌 부칙 개정 후 1회에 한해 사면, 경감, 복권할 수 있다'는 종헌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우리 크면 싸우지 말자”

“이라크 친구들아, 다쳐서 아야 하는 너희를 보면

막 울음이 나와, 우리들은 이다음에 어른이 되면 싸우지 말자.” 조계사 동자승 12명이 18일 서울 이태원 이슬람 중앙성원을 방문, 이라크 어린이 돕기 성금과 평화를 위한 동자승 발원문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슬람 중앙성원 성직자들은 방문한 동자승들을 인양하며 “이라크 어린이들이 이 사실을 알면 무척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고영배기자



◇ '빛으로 꽃으로 오신 부처님'.

등경연 최우수상 선정

‘개인작품’ 선민수 씨
‘단체행진’ 한마음선원

불교위원회 주최 제4회 등경연대회에서 선민수씨의 '빛으로 꽃으로 오신 부처님'과 한마음선원의 '한마음 지구 율동'이 개인 작품등과 단체 행진등 최우수상에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단체 행진 등 부분의 경우 연등축제날인 5월4일 동대문운동장에서, 개인 작품들은 5월2일 봉은사에서 열리는 전통등 전시회 개막식에서 열린다.

한명우 기자 mw@buddhapia.com



◇ '한마음 지구 율동'.

‘북한산도로’ 노선재검토위 구성

불교계·건교부 각 5인, 6월말까지 활동

조계종·건교부 합의

북한산 관동도로 및 천성산·금정산 고속철도 문제가 조계종과 정부 간의 노선재검토위원회 구성과 대안노선검토위 구성을 위한 실무 작업에 각각 돌입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현고스님과 사회부장 미산스님은 14일 총무원장실에서 건교부 최재덕 차관, 건교부 도로국장, 국무총리실 경제조정관과 만나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기존 노선을 검토대상에 포함키로 하는 등 5개 항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불교

계와 건설교통부 양측에서 각각 10인씩 추천하고, 추천된 사람들 가운데 쌍방이 합의한 각 5인씩으로 노선재검토위를 구성해 6월말까지 45일간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불교계와 정부의 입장이 달랐던 검토대상 노선에 대해서는 의정부와 노선, 북한산 국립공원외곽 우회노선, 기존노선 등 3개 노선으

로 하되, 노선의 경제성과 효율성, 환경상태적 가치 및 역사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키로 했다.

그러나 조계종은 아직까지 노선재검토위에서 활동할 5인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45일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효율적인 노선 검토가 이뤄질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등 풀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안고 있다.

금정산·천성산 문제도 16일 시민종교대책위와 정부 측이 대안노선검토위 구성을 위해 실무모임을 가졌으나 양측의 입장 차가 커 난항을 보이고 있다.

한명우·천미희 기자

스님! 무료로 인터넷 배우세요

1차 5월 19~6월 13일, 2차 6월 2~28일
해당지역 스님·종무원 많은 참여바랍니다

불교정보화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스님들에게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후원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스님과 종무원들만으로 구성되는 특별반 체제로 운영됩니다. 교육 실시 지역의 스님과 종무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1차 구리·남양주지역 교육 안내

지역	대상	기간	장소
경기	구리·남양주시 스님 및 종무원	5월 19일~6월 13일(4주) 매주 월~금요일 오후 4시~6시	구리 우체국 4층 정보교육실

제2차 춘천 및 강릉지역 교육 안내

지역	대상	기간	장소
춘천	춘천 일원 스님 및 종무원	6월 2일~6월 28일(4주) 매주 월~금요일 오후 4시~6시	춘천우체국 정보교육실
강릉	강릉 일원 스님 및 종무원	6월 9일~6월 27일(3주) 매주 월~금요일 오후 1시30분~3시 30분	강릉우체국 정보교육실

- 교육과정: 윈도우 98, 인터넷 초급과정
- 수강료: 무료(교재비 4천원 본인부담)
- 신청 접수: 불교정보화협의회 사무국장 임연태 02-722-4162, ytlm@buddhapia.com
- 신청 기간: 5월 4일까지 전화 및 전자우편
- 모집 인원: 각 지역 15명

*3차 이후 교육은 추후 공지합니다.

불교정보화협의회·현대불교신문사

www.dhssystem.co.kr

불지님들께 대한시스템이 특별한 민족을 드립니다

Anegre 네그레 CD.074C

대중방이 정리가 되지 않으신대요? 저희 대한시스템 불박이장이 깔끔하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空間藝術

대한시스템 불박이장은 고객의 다양하고 넓은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20여년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격의 디자인과 확실한 품질, 또한 여러종류의 차별화된 독특하고 편리한 기능으로 수많은 효율성은 물론 고급스럽고 개성있는 공간을 고객의 기호에 맞게 아름답고 편리하게 꾸며 드립니다.

*실질 비용 대폭 절감 *담합사 *순환사 등

맞춤 불박이장 전문 메이커

(주)대한시스템
불박이장사업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33-74 남동공단 167동 06호
TEL: (032)822-0027-30 FAX: (032)822-0033
소비자보호센터: (012)822-0030